

국민의당 대표당원 절반 축소…安 전대 강행

1만명→4500명으로

전국 분산개최로 당규 고쳐

반대와 “전대 금지 소송”

국민의당의 2·4 임시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방식, 대표당원 자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최근 합당 반대파의 반발을 누르고 당규 개정을 함으로써 합당의결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의결 정족수(대표당원 과반참석, 과반찬성)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단일 장소이던 전대 장소를 전국 분산 동시에 개최로 방향을 틀 수 있게 하면서다.

합당 반대파측은 당무위의 당규개정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조만간 법원에 전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대에서도 표결권이 있는 대표당원의 수가 기존 1만명 수준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500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내부 전망이 나오면서 합당반대파 측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당 반대파는 그동안 “이번 전대는 의결정족수도 못 채울 것”이라고 공언해 왔는데, 안철수 대표 등 합당찬성파가 당원 권리까지 박탈하면서까지 합당한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 줄이기에 나섰다.

국민의당 김종조 의원(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지난 15일 밤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당규 개정으로) 탈당자와 사교자 처리를 하게 되면 대표당원 수가 45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1만명 수준이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라는 물음에는 “4500명 왔다갔다 한다. 5000명 가까이, 4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라며 “대강 그정도고 정확



원로에게 정치개혁을 묻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주최로 ‘시민사회 원로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고견을 듣는다’ 시국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숫자는 빼놔야지”라고 말했다.

전대준비위원장으로 대표당원 명부를 확정하는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대에서 대표당원 2500명 안팎이 참석하고 이 중 과반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합당안이 의결된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합당론이 불거진 이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한 5000명 안팎으로 대표당원을 줄이면 안전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장소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23~24개 대학장을 정해서 100% 현장투표로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에 체육관 선거 시절도 아니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한 곳에서 치를 필요 있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다리

는 상대당(바른정당)도 있으니 이번 전대는 절대 파행이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당반대파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규 개정으로 대표당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김 의원의 전망에 대해서 반대파측 관계자는 “불법적인 사고다. 대표당원들의 권리를 당규개정 이전으로 소급해서 박탈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합당반대파의 반발을 누르고 당무위가 당규 개정으로 ‘월 1000원 이상의 당비 납부 의무를 1차례라도 어긴 자는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기존 1곳에서 치러지던 전대를 전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것은 정당법과 당헌 위배 소지가 크다는 게 합당반대파의 주장

이다. 합당반대파측은 이르면 16일 당무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전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안 대표 측은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전대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장환진 전준위 대변인은 “전대 개최장소 선정을 전준위 기획본부위원회에서 맡기로 했으며, 전당대회 소집 통지를 위한 대표당원 전수조사 실시를 공명투표본과 위원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합당반대파 반발과 불법 시비에도 당무위 결정대로 대표당원 가운데 당비를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을 제외하고 대표당원 명부 작성에 나선 것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입장 안돼”

洪·安·劉 한목소리 반대…박지원 “보수대야합 3박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평창동계올림픽때 남북선 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남남갈등을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장관이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어 “태극기를 들지 않고 한반도기를 든다는 걸 이해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리더십 아카데미 특강 뒤 만난 기자들이 유승민

대표의 한반도기 입장 반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랜 세월이 걸쳐서 힘들게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통조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주 예방 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태극기를 안 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수석이 “한반도기를 들었던 전례가 있다”고 말하자, 홍 대표는 “한국이 당당하게 국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세 대표는 3박자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한반도기 사용 반대하며 태극기를 사용하자고 합창하고 있다”며 “죽을 맞춰 합창을 하며 보수대야합의 길을 착각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법개혁특위 출발부터 ‘빠격’

한국당, 靑 발표안 반발 불참 통보…1주일 연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혁위)가 출발부터 빠격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개혁위 일정 논의를 위해 16일 열기로 한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회동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반발, 이날 예정된 만찬 회동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전날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안 발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이날 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민중당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오늘

만찬은 취소됐다”며 “장 의원을 설득했지만 당내 분위기가 참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장 의원의 불참 통보 때문에) 만찬을 다음주로 연기하고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향후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개혁위는 애초 이번 주에 일정 논의 등을 끝내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처럼 한국당이 계속 반발할 경우 본격적인 특위 가동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秋 “이달중 당 개헌안 확정…다주택자 과세 강화”

신년 회견…적폐청산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본격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추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개월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개헌과 관련,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대선후보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며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을 미루자는 자유한국

당을 비판했다. 또 “1월 안에 당의 공식적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당론은 1월 내로 정해질 것이고 그것을 갖고 2월 내로 여야간 협의를 도출해낼 생각”이라며 “현실적으로 국회 협의가 안 되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안할 수 있고, 이 발안이 발의된다면 지방선거에 같이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올해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로 가는 전환기적 선택”이라며 ▲지역별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분권 ▲생활속 적폐청산에 기반한 청정 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 분권을 목표로 내걸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지난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내든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땅보다 땅이 보살보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설명했다. 또 “현행 중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영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현악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2018. 2. 6(화) 오후 2:40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2018. 2. 6(화) 오후 2:4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